

與 “검찰 수사중” VS 野 “특검 불가피”

국회 현안질의 이틀째 ‘비선 의혹’ 공방 이어가 여 의원들 잇단 막말 파문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6일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짜라시’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유서를 남긴 것을 고리로 특검 도입을 위한 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야당

을 향해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막말을 해 한바탕 파문이 일었다.

전날 김진태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두고 ‘중복수주’로 지칭한 데 이은 막말이었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친 표현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선실세 의혹 등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 공세의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직접 발언자인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관련 주장에 대해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도발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즉각 “누구 버릇을 고치느냐”, “동료의원에 할 소리냐”는 거센 항의가 잇따랐지만, 이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는 작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

하고, 확대하고, 왜곡·발진시킨다. 그런 버릇을 고쳐달라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의 발언 직후 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금 전 질의한 의원께서 정말 내 버릇 정머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질문) 뒤에 몰래 제게 와서 조언해줬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고치려 애썼을 것”이라며 “혹시 다음에 그럴 일이 있으면 조용하게 청하는 방식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특히 (야당) 여성 의원들 이름만 주로 거론 하더라”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정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 의원의 발언과 최 의원의 사과 요구가 나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덕성여고 학생 70명이 방정석에 앉아 있었다. 앞서 미국 스탠퍼드 경영전문대학원(MBA)의 학생 30명도 방정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봤다.

이 의원은 현안질문 재개에 앞서 신상발언

에서 “오전 질의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것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오후 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운영석 의원이 또다시 최민희 의원을 비난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윤 의원은 최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물가 시계’ 의혹을 놓고 “아무리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싶어도 일국의 국가원수에게 물가니 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안규백·정재래·김기식 등 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항의했고, 최 의원은 두 번째 신상발언을 요청해 “방금 전 발언한 의원이 내 이름을 10번 가까이 언급하며 모욕했다”며 반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檢, 靑문건 유출경로 수사 가닥 박경정 반출하고 한경위 복사하고 최경위 유포했다

정윤희, 박지만 미행설 근거 없다 결론

‘정윤희회 동향보고’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의 유출 경로가 대부분 확인됐다. 검찰은 ‘유출경위조사’가 작성된 배경도 윤곽을 잡았다.

‘정윤희회 문건’ 유출에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나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인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문건유출 수사는 박 경정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경정 반출→한경위 복사→최경위 유포”=16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라면박스 두 개 분량 문건들이 전부 동일한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의 ‘정윤희회 문건’ 역시 박 경정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본실에 갖다놓은 문건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하고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경정은 외부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른바 ‘박지만 문건’, ‘정윤희회 문건’ 등은 그 내용에 따라 복수의 경로로 유출되기도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한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한 경위와 박 경정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경위가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찾아내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복원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한 경위는 한화 대관업무 담당직원 진모씨와 청와대 문건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대자 문건 유출과정을 실뚫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정 반출→한경위 복사→최경위 유포’로 이어지는 유출 과정이 물증과 진술로 자세히 드러나면서 박 경정 역시 진술을 반복하고 문건 반출을 시인했다.

문건 전달경로가 하나인 것으로 잠정 결론나면서 이번 수사의 큰 축인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됐다. 검찰은 ‘유포’ 혐의를 벗은 박 경정의 사법처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박지만 미행설 근거없어=권력암투설을 촉발했던 ‘정윤희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 EG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가 미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술서 존재를 부인하며 본인 스스로 미행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그동안 권력암투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다물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정윤희회 국정개입’ 문건으로 파문이 일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자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휴식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윤희회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없고 자술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윤희회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달 안으로 사실 관계 규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남북국회회담 성사 내년 초 가능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16일 취임 초부터 추진 의사를 밝힌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희망사항이지만 내년 초 가능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국회의원 신년사에 북쪽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제가 하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정계특위가 빨리 만들어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결정난 후 선거구 획정 논의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는 결국 (지역기반) 양당제를 가지고 가는데 국민대통합을 위해선 연정이 필요하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언급한 데 대해 “쓴소리를 하려 한 게 아니고 ‘단소리를 하려 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이 이야기하고 지역구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제 자신도 좀 그런 (대통령의 소통부족)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의원 “북측, 이희호 여사 방북 연기 아쉬워하더라”

개성방문 김정일 3주기 조화 전달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후 되돌아 왔다.

박 의원은 “북측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내년 5월로 연기된 것을 크게 아쉬워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의 건강 염려와 함께 날씨가 좋은 내년 5월에 꼭 방문하기를 원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북측은 연말 남북관계에 어

떠한 돌출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특히, 내년이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강한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하며 북측에 보다 전형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에 들어간후 오후 5시 30분경 되돌아 왔다.

이날 방북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평화센터 윤철구 사무총장, 최경환 공보실장, 박

한수 기획실장 등 7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방북에 앞서 서울 동교동 이 여사의 사저를 찾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이번 조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의를 잘 전달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에 조화를 보냈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방북하는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며, (방북 의미)를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싸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싸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